

‘닥터 헬기’ 전남도민 1205명 생명 지켰다

목포한국병원서 첫 운항 ... 6년간 1315건 출동 전국 6곳서 5000명 이상 ... 운영지역 점차 확대

‘하늘을 나는 응급실’ 닥터 헬기(응급의료 전용헬기)가 전남지역 환자 1205명을 병원으로 옮겼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2011년 9월22일 목포한국병원에서 첫 운항을 시작한 닥터 헬기가 6년 동안 1315차례 출동, 전남지역 응급환자 1205명이 헬기를 이용했다.

응급환자 증상별로는 일반외상, 호흡곤란, 화상, 약물중독 등이 758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증외상 241명, 뇌질환 194명, 심질환 194명 순이었다.

지난 6일에는 2011년 닥터 헬기를 운항을 시작한 지 6년 만에 전국적으로 이송한 환자 수가 5000명을 돌파했다.

닥터 헬기는 2011년 76명의 중증응급환자 이송을 시작으로 2012년 320명, 2013년

485명, 2014년 950명, 2015년 941명, 2016년 1196명을 이송하는 등 매년 운영횟수가 증가했다.

닥터 헬기는 지역 거점 응급의료센터에 배치돼 첨단 의료장비를 갖추고 응급환자 치료 및 이송 전용으로 사용하는 헬기를 말한다. 환자의 구조요청 즉시 의사 등 전문 의료진이 탑승·출동한다.

닥터 헬기에는 인공호흡기, 심장효소검사기, 기도흡인기, 정맥주입기 등 장비가 있어 정맥로 확보, 약물투여 등 전문처리가 가능하다.

중증응급환자는 신속한 응급처리와 역량 있는 의료기관으로 후송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수도권 및 일부 도시에 응급의료 인프라가 집중돼 대형 의

료기관으로 이송이 어려운 도서 및 산간지역은 골든타임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배경에서 닥터헬기가 도입됐다.

중증외상의 골든타임은 1시간, 심혈관 질환은 2시간, 뇌혈관질환은 3시간으로 시간 내에 최종 치료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도서 및 산간지역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하기 위해 지난 2011년 9월 이후 6개 지역을 닥터 헬기 운영지역으로 선정, 운용하고 있다.

선정지역은 전남(목포한국병원·2011년), 전북(원광대병원·2015년), 인천(가천대길병원·2011년), 강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2013년), 경북(안동병원·2013년), 충남(단국대병원·2014년) 등 6곳이다.

닥터 헬기 도입 이후 닥터 헬기를 통하여 이송된 환자들 중 3대 중증응급환자(중증외상,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의 비율

이 56.1%에 달하고, 그 외 호흡곤란, 화상, 의식저하, 쇼크 등의 기타 응급질환환자는 43.9%로 나타났다.

닥터 헬기 운용 예산은 2017년 190억으로 배치 헬기 1대당 30억이다. 전남의 경우 중형헬기로 전환해 연간 40억을 지원받는다. 운영방식은 민간 헬기사업자와의 임대계약을 통해 헬기 운영을 위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닥터 헬기 운영지역을 현재 6개에서 11개로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지자체와 협조해 배치병원뿐만 아니라 소방, 해경 등 구급 헬기 운영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든 회원국은 닥터 헬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929대, 독일 80대, 일본 42대의 닥터 헬기를 보유하고 있다.



닥터헬기로 이송한 응급환자를 응급실로 이동시키기 위해 목포한국병원 의료진들이 헬기로 달려가고 있다. <목포한국병원 제공>

독거노인 고혈압·당뇨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 나선다

광주시 북구 건강리더 운영

광주시 북구는 건강리더(Heart 지킴이)를 통해 독거노인들의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건강리더(Heart 지킴이)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에 대한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련 교육을 통해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북구는 북구노인종합사회복지관 및 광

주지역사회 북구 분회와 연계하여 복지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대상으로 오는 27일까지 북구노인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총 4회 교육을 운영한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는 사회복지기관 중 원스톱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노인 관련 사회복지종사자로 독거노인 세대에 대해 매일 전화나 직접 방문을 통해 수시로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주요 교육내용은 ▲고혈압·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의 이해 및 예방관리 ▲북부비만·고중성지방혈증 등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등으로 독거노인들의 생활밀착형 건강관리사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데 필요한 사항들이다.

지난 6일 ‘대사증후군 바로 알기’를 주제로 참여자들의 대사증후군 검사 및 개별 상담을 하였으며, 오는 20일에는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하고, 27일에는 광주시 약사회 북구

분회 소속 안홍섭 약사가 강사로 나서 ‘심뇌혈관질환 관련 약물복용법 및 부작용’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이번 교육이 질병 부담이 크고 주요 사망원인으로 꼽히는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건강 리더로서의 역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강관리에 취약한 독거노인 세대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양질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두암보건지소 만성질환관리담당 062-410-8192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저소득층 사랑의 집수리’ 호응

광주 동구 20가구 연내 마무리

광주시 동구가 올해 3월부터 기초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7년 저소득층 사랑의 집수리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사랑의 집수리사업’은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수선유지급여사업’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행복한 목수 주택 리모델링 사업’,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 ‘장애인 주택 개보수 사업’ 등 4개 사업 구성된다.

동구는 지난 2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총 사업비 2억8600만원의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주택노후도 조사를 실시해 모두 52가구를 선정했다.

9월 현재까지 42가구 공사를 마쳤

으며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350만원, 중보수 650만원, 대보수 950만원 한도로 공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민간단체 재능기부로 진행되는 ‘행복한 목수 주택리모델링 사업’은 15가구를 목표로 현재 11가구의 공사를 마무리했다.

또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에서 후원하는 ‘사랑의 보금자리사업’ 2가구는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추석 이후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애인 주택 개보수 사업은 5가구를 선정하고 1가구 집수리를 끝냈다.

동구는 ‘수선유지급여사업’ 10가구, ‘행복한 목수 주택리모델링 사업’ 4가구,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 2가구, ‘장애인 주택 개보수 사업’ 4가구는 올 하반기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자전거 이용 활성화 ‘찾아가는 이동수리센터’ 운영

광주시 서구

광주시 서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 수리센터를 운영한다.

12일 서구에 따르면 자전거를 수리할 곳이 마땅치 않아 불편을 겪는 서구 주민들을 위해 정비전문가가 각 동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서구가 상반기 운영했던 자전거 이동 수리센터는 총 48회 1682대의 자전거를 수리했을 정도로 주민들의 호평과 함께 이용주민이 날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서구는 자전거 이동 수리센터를 찾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동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주요 아파트와 복지시설 등에도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자전거 수리 전문가 4명이 18개 동 주민센터와

아파트, 복지시설 등을 순회한다.

자전거 안전점검과 브레이크, 기어질, 공기주입, 기어세팅, 펌크 등 간단한 정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단, 튜브교체, 브레이크 수리 및 교체, 기어줄 교체 등의 비용이 수반되는 수리는 부품값은 주민들이 부담해야 한다.

자전거 이동 수리센터는 오는 11월30일까지 매주 화, 수,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자전거 이동 수리센터의 문의사항은 서구청 녹색환경과(062-360-7894)로 하면 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친환경 녹색 교통 수단인 자전거를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 수리센터뿐만 아니라 자전거 교실 등 다양한 자전거 생활화 시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시 북구, 기초생활 조건부 수급자 직업 교육

광주시 북구는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9층 취업특강실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중 조건부 수급자를 대상으로 자활능력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참여대상자는 조건부 수급 대상자 중 미취학자녀 양육자, 대학생, 월 소득 60만원 초과 9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이다.

상담 및 자활지원계획 수립과정을 거쳐 지원대상자 유형별로 ▲심리지원 ▲경력설계지원 ▲직업진로지도 프로그램 등 개별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은 분기별 1회 1.5시간, 연 4회 6시간으로 단기특강 형태 맞춤형 강의를 운영할 예정이다.

미취학자녀 양육자와 저소득자는 일과 삶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심리적 자립지원’과 ‘장애요소 극복 및 안정적 일자리로의 경력설계’ 등 두 단계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부안 숙박시설(모텔) 매매·임대

여름성수기 펜션 영업가능



격포해수욕장, 대명리조트, 해변가 5분
토지 506평, 건물 430평(2개동 룸43개)
직접 운영시 월 수익 1500만원 가능

감정가 16억 → 매매가 9억
(용 6억, 보 1억, 실투자 4억) ★즉시임대가능★

직매 010-7384-7800

영광주택

전원주택(영광읍) 광주에서 30분

즉시입주 가능 내부개끗

토지 151평
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

감정가 1억 1천
매가 9천8백

010-6670-9800

법률경매 (주)대신경매

노후대비 최적합

- 1) 상무지구 치평동 상가 1층
감정가 16억 → 최저가 5억7천
- 2) 동구 금남로 충창로 코네(15층 상가건물)
감정가 251억 → 최저가 175억(특A급)
- 3) 남구 진월동 (상가주택)
광주대 3분거리, 월수익 5백 이상
감정가 7억5천 → 최저가 7억5천
- 4) 남구 진월동 (5층 상가건물)
감정가 18억 → 최저가 18억
- 5) 북구 신안동 (무인텔)
감정가 51억 → 최저가 36억
- 6) 북구 양산동 공장 (토지 3653㎡, 건물 3971㎡)
감정가 39억 → 최저가 17억
- 7) 북구 중흥동 (3층 상가건물)
감정가 9억6천 → 최저가 9억6천

특수물건, 절반물건, 상가.토지, NPL전문

경매교육

매주 월요일 개강
기초부터 실전까지
062-382-5500